

“신속한 역학조사·방역망 구축으로 확산 차단”

코로나19 방역 최전선 현장을 가다

〈2〉선별진료소 감염병관리팀

혹한에 방호복 착용 하루에만 수백명 검체 채취
심층 역학조사로 확진자 동선·접촉자 추적 나서

“격리해제 검사 받으러 오셨나요? 이 쪽으로 오세요.”

5일 찾은 광주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전부터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이날 영하권을 밑도는 날씨에도 방호복 하나만을 걸친 의료진들은 검사 대상자를 상대로 문진 절차와 검체 채취를 진행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이 곳을 찾은 검사자는 기본적인 문진 절차를 거친 이후 뒷쪽에 마련된 천막에서 검체 채취를 받았다. 검진이 다 끝나고 나서는 검사자의 동선에 따라 소독 절차가 진행되는 등 끊임없는 업무가 이어졌다.

채취된 검체들은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수탁기관에 맡겨진다. 밀접 접촉자나 위급한 검사자의 검체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져 당일 밤 결과가 나오고, 그 이외에는 모두 수탁기관에 전달돼 다음 날 통지를 받게 된다.

광주지역 선별진료소는 현재 각 자치

구 보건소를 포함해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등 총 13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다.

당초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곳이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에 무증상 감염자가 산발적으로 늘어나고, 가족 간 전파도 잇따라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자발적으로 이곳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신이 확진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검사자는 즉시 자택으로 돌아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 다른 접촉자를 양성하지 않기 위해서다.

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검체 채취반과 더불어 방역 최전선에 투입돼 업무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찾아내는 역학조사반이다. 접촉자 중에서도 자가격리자를 찾아내고,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고 있다.



2021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와의 사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사진은 광주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진단검사를 위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는 모습.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선과 접촉자를 일일이 다 찾아내야 업무가 끝나는 터라 날밤 샅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자가격리자를 병원에 보내는 일도 쉽지 않다.

현재 자가격리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에는 대학병원을 비롯해 5곳이 지정돼 있다. 하지만, 격리병상이 부족한 탓에 몸이 아픈 자가격리자가 바로 입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히, 광주시에에서도 감염병관리과가 생기면서 병상문제에 대한 조율을 돕고 있고, 지난 1여년 간 쌓아온 노하우로 업무 분담의 효율성이 제법 늘었다. 지원 인력이나 신규 채용 등으로 업무량에 대

한 피로감도 많이 줄어든 상태다.

보건소 방역 소독팀도 일선 현장 방역 작업에서 최전선을 다하고 있다.

이전에는 모기 등 유충구제방역 등의 업무를 맡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엔 의료방역이 이들의 주된 업무가 됐다.

확진자 동선에 따라 소독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감염자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밤낮없이 근무가 이어지고 있다.

선별진료소가 운영된 지도 어느새 1년째. 초반에 비해 노하우가 생겨 선별진료소 구성원들은 제법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당국과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응급환자는 물론 긴급 검사가 필요한 시민들에 대해 원활하고 신속한 방역활동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작년 초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로 꼬박 일년동안 고생해 온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다.

박희경 서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온 선별진료소 모든 구성원들이 올해는 건강 관리에 더욱 유념했으면 좋겠다”며 “기본적인 방역지침 준수로 코로나 확산세가 잡힐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최영진기자

“형평성 어긋난 방역”...광주 유흥업소 집단 반발

700여 업소 ‘간판 점등’ 시위...거리두기 연장시 영업 강행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연장하면서 지역 유흥업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에 따르면 소속 700여 유흥업소가 이날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시행이 연장된 오는 17일까지 간판에 불을 켜고 가게 문을 여는 ‘간판 점등’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시위 기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손님 찾아오더라도 시위 취지를 설명한 뒤 돌려보낼 방침이다.

이들 업소는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노래연습장 등 유사한 형태의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집합금지한 데에 형평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유흥업소는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위 ‘사치성 향락업소’로 분류해 대출 자체가 배제돼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남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사무처장은 “코로나 이후 끊임없이 행정기관에 찾아가 ‘유흥업소 자체를 못 열게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며 “그러나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광주에서 유흥업소발 확진자가 터졌을 때는 행정명령을 철저히 지키면서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흥주점은 어떤 경우에도 대출이 어렵다. 대다수 일반 식당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한 방역지침 기준으로는 겨우 한 시간 일찍 문 닫는 꼴”이라며 “유흥주점은 집합금지로 수개월째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부지원금을 식당은 200만원, 유흥주점은 300만원을 받았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코로나가 낮과 밤을 가리면서 전파되는 것도 아니고, 식당은 확진자 발생 시 식당 폐쇄만 하는데 유흥업소는

일대는 물론, 지역 전체를 폐쇄한다”면서도 “협소한 공간이라는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노래연습장도 유사한 형태인데 왜 우리만 문은 닫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오는 18일 방역지침이 연장된다면 벌금 300만원을 내더라도 영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17일까지는 행정명

령을 준수하면서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간판 점등’ 시위를 다른 지부로 전파해 전국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유흥업소들에 앞서 시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방역 수칙에 반발하는 헬스장 업주들도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 집회 개최 등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동수기자

코로나 시대, 범인 잡는 법

범인 잡는 법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범인을 뒤쫓아 다니기에 부담을 안고 있던 경찰이 범인의 이동 동선을 예측해 금은방 절도범을 검거.

○...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 9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절도)로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33분께 광주 북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와 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보여달라고 업주에게 요청한 뒤 귀금속을 가로채 도주.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서울과 부산 지역을 오가는 A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은 그가 고속버스를 타고 호남 방향으로 이동하는 정황을 발견했고, A씨가 다시 광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한 뒤 터미널에서 잠복, 광주에 도착한 A씨를 검거. /김동수기자

광주경찰,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237명 기소

지난해 2월 이후 315명 수사...112 신고도 2천200여건

광주경찰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총 23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부터 지난 4일까지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315명을 수사해 23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으며, 현재 16명을 수사 중이다.

구체적으로 격리조치 위반 혐의로 33명(29건)을 수사해 30명(27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2명을 수사 중이다.

또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259명(45건)을 수사해 196명(39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4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방역당국·지자체의 역학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광주청 산하에 신속대응팀 119명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신속대응팀은 현재까지 1천481명의 소재불명자의 위치를 확인해 방역당국에 제공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

았으나 주거지를 이탈, 영광으로 도주해 입원조치를 거부한 사건도 신속한 소재수사를 통해 추가 전염을 막는데 기여했다.

코로나와 관련한 112신고 접수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2천232건(집합제한 1천85건·마스크 시비 447건·무단이탈 380건 등)이 접수됐다.

이 중 259명을 적발했으며, 집합제한 226명, 마스크 시비 31명 등으로 집계됐다.

보건당국 및 지자체와 함께 고위험시설 총 1천783개소의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합동점검해 미준수 401건을 적발했다.

자가격리자 1천439명(누적)의 격리조치 위반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경찰은 코로나 관련 112신고는 강력 사건에 준하는 ‘코드1’로 분류해 긴급출동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이 n차 감염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오송지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화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 야외 결혼식
- ▶ 칠순잔치
- ▶ 체육대회
- ▶ 야유회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